

생활물가 상승률 6년새 7~8%... 전국 최고

호남동계청 '광주·전남 생활물가 변화'

100여개 품목 상승... 전남 하수도로 205% 올라 '최대' 광주, 주거·식음료 품목 상승세 높고 교육·에너지 낮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생활물가 상승률이 2010년 대비 7~8%대를 기록한 가운데 생활물가지수 품목 중 2010년 대비 최고 상승 품목은 광주에 '담배', 전남은 '하수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지역의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대구와 부산에 이어 6개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았고 특히 월세 상승률은 전국 시·도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11~2016년 광주·전남도 생활물가 변화'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의 생활물가지수는 108.01(2010=100)로 6년전에 비해 8.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상승률 7.8% 보다 0.2%포인트 높고 전국 9개 도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하수도로(205.0%)와 담배(83.7%), 고추장(66.3%) 등이었으며 하락폭이 큰 품목은 학교급식비(-71.9%), 납입금(유치원 -34.3%), 등유(-29.4%) 등의 순이었다.

생활물가지수 품목 142개 중 2010년 대비 상승품목은 110개, 하락품목은 28개, 보합품목은 4개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큰 품목은 배추(70.3%), 하수도로(47.2%), 시금치(36.4%), 마늘(35.8%), 꾀(35.2%) 등

이었고 하락폭이 큰 품목은 등유(-19.8%), 도시가스(-16.6%), 사과(-12.2%), 경유(-12.2%), 초코파이(-9.2%) 순이었다.

또 2010년 대비 전남 지역의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국 시·도 평균인 24.8%와 8.9% 보다 낮은 14.4%와 6.9% 상승했다. 이를 전국 9개 도와 비교해보면 전세 상승률은 제주(11.0%), 경북(11.8%)에 이어 3번째, 월세는 경북(5.4%), 강원(6.8%)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이에 반해 광주 지역의 생활물가지수는 107.17로 지난 2010년에 비해 7.2% 상승해 전국 도시 평균 7.8%보다 0.6%포인트 낮게 상승했다.

지난 2010년 대비 6개 광역시 가운데 대전(6.0%)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이다. 6년간 평균상승률은 6.6%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월세 등 주거와 식음료 관련 품목은 높은 상승률을 교육과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세가 낮아 대조를 이

뤘다.

2010년 대비 담배(국산)가 83.7%, 갈치(80.1%), 소금(62.1%) 등의 상승폭이 큰 반면 학교급식비(-70.7%), 무(-34.9%), 납입금(유치원, -27.2%)은 하락폭이 컸다.

올해(1~9월) 최고 상승품목은 배추(45.3%), 마늘(34.5%), 파(23.3%), 무(21.8%), 시금치(20.3%) 등이었으며 하락품목은 등유(-17.6%), 도시가스(-17.4%), 사과(-16.6%), 고등어(-12.1%), 달걀(-12.0%) 순이었다.

2010년 대비 2016년 광주 지역 전세는 22.9%, 월세는 9.3% 상승했다. 6개 광역시 중 전세는 대구(24.5%), 월세는 부산(11.8%)에 이어 각각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상승률은 전국도 시·도 평균 상승률(8.9%)보다 0.4%포인트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0.60 (-0.34)	금리 (국고채 3년) 1.35% (0.00)
↓ 코스닥 655.68 (-5.58)	↑ 환율 (USD) 1127.50원 (+4.30)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광은리더스클럽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김한 광주은행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광주은행 제공>

광은리더스클럽 이웃돕기 2천만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9일 열린 광주은행장배 '2016 광은리더스클럽 체육대회'에서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모은 성금 2000만원을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식에는 김한 광주은행장과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200여명의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의 회비로 모인 성금 총 2000만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CEO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은 그 동안 광주은행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전파하고 있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광은리더스클럽과 적극적인 동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외된 이웃에 먼저 다가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갤럭시노트7 단종 소비자 불편 최소화"

미래부장관, 현장 방문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판매 중단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비자 불편과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찾아 유통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돼야 하고, 유통망의 애로 해소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여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사건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장관의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난 한 주간의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편과 유통망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과 이동통신사들에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미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에서 실제 최 장관은 "제품의 안전문제가 원인이 된 만큼 신속하게 교환·환불이 완료돼야 하고, 기업들은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방사선사 학술회 및 총회'에서 가볍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한 이동성과 혁신적인 편의 기능을 갖춘 삼성전자의 이동형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 생산 가전제품 지역 아파트에 우선 공급

가전업계-건설업계 협약... 전국 첫 상생 모델 주목

광주 중소 가전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이 지역 건설업체의 신규 아파트와 원룸 등에 우선 공급된다.

지역 가전업체는 새로운 판로 확보의 기회로, 건설업체는 지역의 우수 제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전국 최초의 건설업-제조업계 간 상생모델로 주목된다.

광주시는 20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함께 '지역 가전제품 판로지원 등 상생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가전 생산라인 일부 해외 이전에 대응, 완제품 생산 체계 구축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지역 가전기업의 판로 확보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의 중소 가전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아파트·원룸·도시형 주택 등에 공급이 가능한 완제품을 지역 건설업체가 우선 구매한다.

광주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모아종합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 15개사, 지역 가전업체인

(주)인아 등 17개사, 광주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광주지역본부,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했다.

지역 가전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의 기회가 생기고, 건설업체에는 지역 우수 제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과 제품판로 개척을 위한 광주형 공동브랜드 개발, 명품 중소기업 육성, 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로 지역업체들이 자칫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첫 100만 돌파

1년전보다 2.6% ↑... 제조업·중국인·30대 비중 높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출난 등에 따른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외국인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률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3.7%)보다 조금 높은 4.2%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인 142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어났다.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자가 81.0%, 여성이 50.9%로 남자가 여자보다

30.1%포인트나 높았다.

외국인 국적별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7.4%), 비한국계 중국(6.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15~29세가 26.6%, 40~49세가 19.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비중이 45.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19.4%를 기록했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만~200만원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300만원 37.9%, 300만원 이상이 8.9%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강력 추천!!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7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